

# 도 답 도 답



2018년 제11호

## ● 나의 성인지 감수성은?

다음 문장 읽고 공감하면 체크해 보세요.

- ① 여자들은 예쁘다, 섹시하다 등 미모나 성적 매력을 칭찬받는 것을 좋아한다.( )
- ② 재미있는 농담에 성적인 내용이 일부 들어가는 것 정도는 괜찮다.( )
- ③ 상대방의 “싫다” 중에는 예의상 거절이나 중으면서도 튀기는 경우도 있다.( )
- ④ 우리나라의 성평등 의식·수준은 이미 충분히 개선되어 있다고 생각한다.( )
- ⑤ 노출이 심한 옷과 같이 피해자에게 일정 정도 책임이 있는 사례도 있다.( )
- ⑥ 가벼운 스킨십은 친근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가끔 필요하다.( )
- ⑦ 휴식 시간 중에 잠깐 야한 동영상 보는 것은 나의 자유이며 사행활동이다.( )
- ⑧ 피해자의 일방적인 느낌을 성희롱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.( )
- ⑨ 접대업무나 회의준비 등 업무는 여성이 맡는 것이 좀 더 보기 좋고 편안하다.( )
- ⑩ 성적 불쾌감이 들어도 조직을 위해 어는 정도 넘어가는 것이 필요하다.( )



◆ 체크 항목 0개: 훌륭하군요!

◆ 1 ~ 3개: 좀 더 분방이 필요해요

◆ 4 ~ 6개: 의식 개선이 필요해요

◆ 7 ~ 10개: 매우 위험해요

출처: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

나의  
생각

나와 상대방의 생각은  
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!



객관적  
관점

- 부하직원에게 점수를 따고 싶어서 섹시하다고 칭찬을 했습니다.
- 인생 선배로 연애, 결혼과 자녀문제 등에 대해 조언이나 충고를 할 수도 있지 않나요?
- 불편했다면 그 자리에서 불만을 제기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하는 것은 그 의도가 순수해 보이지 않습니다.

- 칭찬의 의도라도 듣는 상대방은 성적 발언으로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. 평소 업무 태도나 장점을 칭찬하는 것은 어떨까요?
- 개인의 사행활동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세요. 상대방의 사생활을 존중할 때 나의 사행활동 존중될 수 있습니다.
- 성희롱은 주로 권력관계의 불균형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성희롱 발생 당시 바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발생 당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 성립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

